

家庭管理學의 本質과 方法

Principle and Method of Home Management

今井光映原文

(이화여고)

박 남 길 옮김

Nam Kil Park

<目 次>

- I. 序 論
- II. 家庭經營學의 發展과 內容
- III. 家庭經營의 方法
- IV. 家庭管理學의 內容과 本質
- V. 家庭經營學과 家庭管理學과의 關連

I 序 論

家政學의 內容 혹은 體系는 그것을 論하는 者의 수만큼 存在하는 感이 있고, 各論者의 學問的背景 立場에 따라 多樣이라 하겠다. 이것은 家政學의 內容의 多樣性에서 오는 當然之事일 것이다.

나는 家政學을 아래서 말하는 것과 같은 家庭經營學으로 理解한다. 그러던 마치 가을山野에 도라지꽃 싸리꽃들이 피어 넘친 것 같은 諸科學의 綜合인 家政學(家庭經營學)을 獨立된 統一의인 學問으로서 認識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찾아 보아야 할까? 그 根源은 人類史의 最古의 時代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나, 統一의인 學問으로는 嬰兒期나 다름 없는 家庭經營學은 그 自身의 學問의 性格如何에서 문제를 解決하여야만 하겠다.

II 家庭經營學의 發展과 內容

그러면 家庭經營學의 內容에 있어서는 그 典型을 우선 美國 Home Economics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美國 Home Economics의 內容은 벌써 1902年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에서 確認할 수가 있다. 即 Home Economics는 一方으로는 人間(家族)을 싸고도는 直接的 自然科學的 環象(Immediate Physical Environment)에

관해서이며, 他方으로는 人間(家族)의 社會科學의 特性 혹은 行動(his nature as a social being)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兩面의 關係에 관한 學問으로 把握케 되었다(傍點은 筆者에 의한 것).

위에 Home Economics의 概念에 있어서, 첫째로 人間(家族)을 둘러싼 自然科學의 環象은 衣食住 勞動 등에 관하여 物理, 化學, 生理, 衛生, 營養 등의 自然科學에서 찾고, 둘째는 人間(家族)의 社會科學의 特性 혹은 行動은 家族의 構造 法律 關係 經濟行爲, 家計管理 등에 관하여 社會學, 法學, 經濟學, 商學, 經營學, 會計學 등의 社會科學에서 찾으며, 셋째는 家族의 心理, 倫理, 人生觀 등에 관하여 心理學, 倫理學, 哲學 등의 人文科學 등에 各各 찾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兩者의 關係는 自然科學, 社會科學 혹은 人文科學의 各科學의 知識이 家庭經營의 實踐에 있어서 合目的인 統一的 調整을 意味하는 것이다.

家庭經營의 實踐은 크게 생각하면 生活資料의 調達에 관한 經濟面과 生活資料의 加工 保全의 技術에 必要한 自然科學의 知識面으로 各部門別로 獨立하여 合理的으로 實踐되는 것만으로는 家庭經營의 全體的 合目的性에 비추어 充分하지 못하고 他科學의 知識과의 關連과 全體的 目的性의 立場에서 實踐되어야 한다. 例컨대 貨幣價値에 있어서 經營은 技術과 經濟와의 交涉場所인 것처럼 技術과 經濟와의 宿命的인 關係가 생긴다. 또는 家庭經營의 主體는 家族이라는 非合理的인 人的目的 構成體인고로, 自然科學의 合理的인 加工, 保全, 技術 혹은 經濟科學의 合理的인 經濟行爲까지도 非合理的으로 合目的的化하기 쉽다. 여기서 家庭經營에 있어서는 技術과 經濟와 社會의 三面에 관하여 自然科學 社會科學 혹은 人文科學의 諸學科의 知識의 合目的的 統一的 調整으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이 調整이야말로, 以上の Home Economics의 概念規定에 있어서 特히 強調하여진 家族의 自然科學의 環象과 社會科學의 行動과의 兩面의 關係의 意味라고 나는 理解하고 싶다.

이와 같이 Home Economics는 最初부터 學者의 單純한 頭腦의 產物이 아니라 家庭經營의 諸部門의 合理的 實踐과 그 全體的 家庭經營을 爲한 合目的的 調整을 目的으로 成立되고 發展되었으나 그 發展과 內容은 美國의 經濟 社會의 發展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이다. 即 美國의 Home Economics는 1800年代의 後半부터 產業에 있어서 自然利用의 科學의 發展에 應하여 먼저 衣, 食, 住, 育兒 등에 관한 應用自然科學에 뒤따라 高度化한 科學의 物質的 家庭生活에 應하기 위하여서는 商品 自體의 科學的 知識과 商品의 合理的 調達 使消의 態度에 관하여 消費者 經濟學(商品學을 包含)이 때를 가치하여 擡頭한 E. W. Taylor의 產業에 있어서 作業時間의 科學的 管理와 그것의 批判的 展開인 勞動生理學의 發展에서 家事勞動 時間과 家事作業의 分析, 家事勞動 生理에 대한 所謂 家事勞動科學 혹은 家事作業學과 또 第一次 大戰후는 社會 倫理的 變革

에 따르는 家族關係의 調整에 관하여 家族關係論이 各各 合理的으로 圓滿한 家庭經營에 要求되고 Home Economics의 內容으로 附加되어 왔다. 物質을 中心으로 한 管理에서 人間 에너지의 管理(人間的 客體化), 그리고 人間 그 自體의 主體的 管理로 그 對象을 展開하여 왔다.

要컨데 美國 Home Economics는 美國 家庭을 에워싼 社會的 經濟的 變化에 應하여 家庭生活에서 나타난 個個의 具體的 問題를 合理化하며 또 나아가서는 家庭經營 全體的에 合目的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實踐 學問으로 發展하고 內容분계 하여 온 것이다. 특히 家族關係論의 擡頭는 經濟, 社會生活의 變化와 向上——家庭生活의 危機(특히 家族間의 疎遠과 軋轉에 關하여)와 같은 因果關係에 뒤따른다. 即 產業에 있어서는 勿論이거니와 家庭에 있어서는 過去 二世紀에 걸쳐서 物的 諸技術은 끈임없이 能率化를 推進시켜온 反面 그 같은 期間을 통하여 人間關係 조정의 能力은 한결 같이 減能의 一路를 걸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企業經營(Business Economics)에 있어서 生産技術의 놀랄만한 發展을 가져온 資本主義가 組織에 있어서 人間性 復歸에 深刻이 煩悶하기 시작하고, 近代產業 文明에 對한 杞憂에 넘친 危機가 潮次 人間을 窒息케 하였을 때 人間關係의 管理에 賢明하였던 것 같이 家庭經營(Home Economics)에 있어서도 家族을 둘러싼 諸空間의 變化에 對應하여 家庭에 있어서의 人間關係 即 家族 關係의 管理로 向한 것은 至當한 일이었다.

도리켜 보건대 우리나라의 家政學은 특히 資本主義의 發展 以後 大體로 美國의 Home Economics의 發展과 內容體系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即 明治 中葉까지는 家庭倫理(特有關 「婦人의 道」)와 經驗的 家事技能을 大綱으로 삼았던 우리나라 家政學이 明治 後半에서부터 大正에 걸쳐서 歐美流의 應用 自然科學的인 Domestic Science의 接近을 導入한 背景과 過程은 1800年代 末에서 1900年代 初에 걸쳐서 美國 Home Economics의 應用, 自然科學的 接近의 背景과 過程 또는 第二次 大戰後 社會構造的, 家族構造的, 家族法的, 家族倫理的 變革에 應하여 家族關係論을 擡頭시킨 背景과 過程은 第一次 大戰後의 美國의 家族關係論의 背景과 自覺에 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家政學의 發展과 內容附加는 美國보다 數十年 뒤늦은 再現이라 할 수밖에 없다.

Ⅲ 家庭經營學의 方法

그러면 家庭經營學을 以上과 같이 理解할 때 이와 같이 諸科學의 綜合인 家庭 經營學을 果然 獨立의인 科學 學問으로 認定할 수 있을까라는 疑問이 獨逸式觀念論에 젖은 識者 中에서 나옴런지도 모른다. 家庭經營學을 獨立된 科學으로 認識하기 위하여서는 于先 이런 點을 明確히 하여야겠다. 即 一般으로는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모든 方策論 혹은 技術論은 非科學으로 看做되고 科學이라함이 否定되어 버린다. 그리고 方策

論 혹은 技術論과 같은 實踐의 研究가 非科學이라 함은 그 方策 혹은 技術이 奉仕하는 窮極價值的 普遍的 拘束性的 缺如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科學은 諸提案을 주는 것이 아니라, 事實을 認識하려는 것이고, 沒價值的인 것이며 어떠한 形狀으로 實踐에 提示를 주는 것이기는 하나 合目的的의 性을 가지는 것은 벌써 科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Ricket 的인 價値關連의 理論을 採用하면 實踐目的과 그에 對한 價値判斷——善惡의 判斷을 주지 않는 限 合目的的 研究도 客觀性을 가지고 科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科學의 非實踐性인 本質認識에 있어서는 家庭經營 實踐을 위한 最大可能 方策을 提示하는 家庭經營學은 當然히 科學이 아닌 것이 된다. 然이나 이러한 家庭經營學의 非科學性에 對한 非難은 反駁 받지 않으면 안 된다. 一般의으로 認識 받고 있는 것 같은 沒價值的의 接近 或은 純粹理論만이 科學이 아니고, 理論을 合目的的으로 實踐에 옮길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單純한 術(art)이 아니고, 그 過程이 科學的이거나, 또는 科學的이려고 노력하는 限 그것은 科學인 것이다.

나는 家庭經營學을 技術學으로 理解할 것을 주저하지 않으나 여지의 技術은 單純히 Art가 아니다. 텍놀로지(공업 기술학)를 意味한다. 그리고 이 텍놀로지로서의 技術學이야 말로 眞意의 科學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技術的이라 함은 行動規則을 주어야 할 任務를 가지는 까닭에 實踐의 內在이며 實證的이며 그러한 뜻에서 科學인 것이다.

특히 英美에서는 實證的=科學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으나 여기서는 傳統과 經驗에 의한(rule of thumb) 非科學的인 接近 以外에는 모두 科學이라 指稱된다. 實證的 歸納法의 方法에 의하여 批判하고 試驗하면서 現實의 家庭經營 目的에 直接쓰여질 것을 第一 目標로 삼고 發達하여온 家庭經營學은 그같은 意味에서 確實히 科學인 것이다.

左右間에 家庭經營體가 目的 構成體인 以上 그 本質 把握은 必然的으로 目的論的=技術論的이 되고, 그 技術學으로서의 家庭經營學이야 말로 以上과 같은 意味에서 眞正한 科學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沒價值的인 接近을 取하는 理論, 또는 純粹科學에 대한 實踐, 혹은 應用科學으로 理解하여 두기로 하나, 그것은 觀照의 科學 혹은 哲學의 考察 方法의 對象이 아니고 實踐에의 奉仕를 窮極 目的으로 하는 所謂 戰略科學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科學은 먼저 應用 혹은 實踐의 科學, 純粹 혹은 理論의 科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實踐科學으로서의 家庭經營學의 學問의 性格은 再確認될 것이다.

Ⅳ 家庭管理學의 內容과 本質

(1) 家庭管理의 本質과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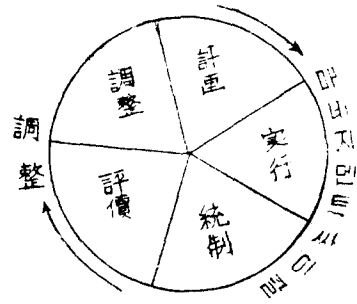
家政學의 分野에 있어서 家庭經營과 같이 第一 가깝고 넓게 쓰여지는 用語에 家庭管理가 있다. 그러면 所謂 家庭管理和 家庭經營은 어떻게 概念把握 되어지나 兩者가 全혀 判異한 概念인가 그렇지 않으면 同義인가를 再吟味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明確한 統

一的인 解答이 準元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于先 家庭經營의 概念規定을 살펴보기로 하자. 家庭은 살아 있는 生物이고 家族이라는 主體로 組織되고 生活資料라는 客體에 依해 生活를 營爲하는, 山 目的構成 體인 고로 이것을 家庭經營體라고 하며 이 家庭經營體를 意志活動的 反復的 持續的으로 運營하는 動態的行動(經營하는 것)을 家庭經營이라고 말하고 싶다(더욱이 經營을 動態的과 靜態的의 두 가지로 理解하고 前者를 經營하는 것(Betrieb), 後者를 生活組織體 即 經營體(Betrieb)라 생각하는 법도 있으나 나는 經營을 前者로 理解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家庭經營體를 經營하기에 必要한 知識이 統一配列된 體系가 家庭經營學인 것이다.

이와 같이 家庭經營은 家庭을 意志活動的 反復的 持續的으로 運營하는 一般的 動態的 行動인데 대하여 家庭管理는 家庭을 매네지먼트的으로 經營하는 것이라고 理解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매네지먼트的으로 經營하는 것, 即 管理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端的으로 表示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여기에 있어서 計劃은 家庭經營의 目的과 그 實行 可能과의 사이에서 調和關係를 要求하고 計劃하고 標準을 정하는 意志決定機能인 것이다. 實行은 計劃의 作爲라는 執行機能인 것이고 統制는 計劃—標準(Sollen)과 實行—事實(Sein)과의 調和를 圖謀하고 있다.



또 評價는 統制上的 計劃과 實行的 各者의 妥當性和 兩者의 適合性을 判斷하는 過去監督的 機能이며 調整은 評價上的 次期計劃의 合理的 設定으로 向하는 未來監督的 機能인 것이다.

이 매네지먼트의 要素는 計劃→實行→統制→評價→調整→計劃과 사이클的으로 遂行된다면, 結局은 廣義의 調整인 機能에다 總括되어 진다. 여기에 管理는 計劃, 實行, 統制, 評價, 調整(狹義) 등으로 불리우는 매네지먼트의 諸要素와 並列的 同列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家庭經營的인 合目的的으로 統一하는 調整의 機能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더욱이 管理는 以上의 매네지먼트 사이클에 있어서 計劃→實行→統制→評價라는 結果(過去) 監督(result control)을 通하여 調整……→計劃이라는 未來監督(plan-adjusting control)을 行하는 機能. 不然이면 過去 監督의 보다는도 未來監督的인 機能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即 管理는 計劃實行, 統制, 評價, 調整(狹義) 등의 매네지먼트 要素의 사이클的, 全體的, 統一的 調整機能인 까닭으로보다 더 未來監督的 機能으로 把握되어야 한다. 매네지먼트 要素의 有機的 사이클的 統一調整을 媒介로 하여 Plan→Do→See(past)→See(future)라는 過去→未來→過去の 過程의 調整, 이것이 管理의 本

質인 것이다. 그리고 이 過程에 있어서 經營의 理論→實踐→理論의 修正이 行하여지는 고로 管理야말로 먼저 家庭經營學의 方法으로 말한 것과 같은 意味로 眞正한 科學이라고 할 수 있다.

(2) 家庭管理의 對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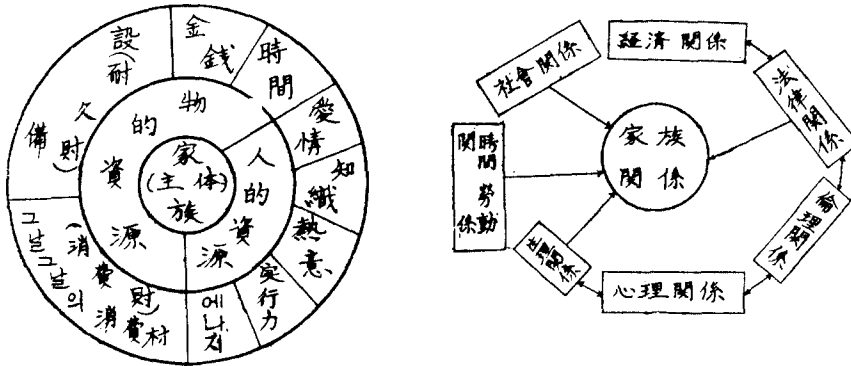
그러면 이 家庭管理의 對象은 무엇일까. 狹義로는 家庭經營의 各部門의 管理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複雜化하고 高度化한 社會에 있어서 家庭經營은 各部門에 있어서 더욱 細分化되고, 高度化하여 진다. 時代에 卽應한 合理的인 家庭經營의 實踐에는 家庭經營의 個個의 部門에 대하여 Special 한 領域의 理論과 實踐이 더욱 要求되고 거기에 따라서 各家庭 經營部門에 있어서 Special 한 部分管理가 要求된다.

그러나 家庭經營體는 全一體의 目的的 構成體인 것이다. 眞實로 家庭經營의 全體의 管理는 이러한 家庭經營의 個個의 Special 한 部門을 個個에 Special 하게 合理的으로 部門管理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의 統一의인 領域으로 General 하게, Unit 하게 調整=管理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Special 한 部門에서의 Special 한 管理能力가 많이 또 깊이 要求되어지는 同時에 家庭經營_問題를 綜合的으로 感得 把握하고 家庭部門 經營을 家庭經營의 全一體의 目的에 調整하는 能力을 必要로 한다. 個個의 樹木으로 妨害받는 일이 없이 숲(森林地帶) 全體를 管理把握하는 能力이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衣, 食, 住, 育兒, 家事勞動, 經濟 등을 諸部門別로 Special 하게 合理的으로 部門管理하여도, 眞實로 綜合的으로 合目的的인 家庭管理가 되지 않는 Special 을 General 로, 個個를 全體的으로 合目的的으로 統一調整하는 것이 (綜合的) 家庭管理이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有效한 家庭管理인 것이다. 家庭管理는 個個의 우수한 部門管理者인 同時에 그것들을 全體的 合目的的으로 統率하는 Top manager 이어야 한다. 따라서 家庭管理는 衣, 食, 住, 勞動, 經濟 등의 家庭經營의 諸部門과 並列의 同列에 位置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時間勞動의 管理와 經濟의 管理로 이루어 진다든지 나아가서 좋게 時間과 勞動과 管理만에 局限된다는 좋은 問題領域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또 넓게 全家庭經營의 問題 領域을 가지는 것이다. 家庭管理의 原理는 全一體의 家庭經營의 管理에 要求되어야 하며 個個의 家庭經營의 部門의 管理에 要求되어야 한다. 家庭管理는 個個의 部門의 實踐에 單純한 集合은 아니다.

또한 最近의 家庭關係論의 擡頭에서 家庭管理論=, 家庭關係論이라고 理解하여지는 影響도 있으나 이러한 때는 家庭關係가 狹義의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所謂 家族의 和合을 對象으로 한 것이며 (事實 家族關係論의 書籍을 家族의 和合을 위한 心理, 法律, 社會 또는 倫理의 各部門別로 個個人이 論하기 쉽다) 이러한 接近은 家庭經營體인 家族의 人間關係의 研究이기는 하나 家庭管理의 研究로는 될 수 없다.

더욱이 나는 家族關係論을 廣義로 解釋하여 家庭의 諸關係를 意味하게 하고 이 家庭

의 諸關係(廣義의 家族關係)를 調整=管理하는 것이 家庭管理라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이러하다. 卽 위에서 나는 家庭管理는 家庭經營의 各部門의 管理上 家庭經營 全一體의 合目的的으로 調整=管理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家庭經營의 諸要素에 關하여 말한다면 家庭經營을 可能하게 하는 諸要素의 合目的的인 짜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家庭經營의 要素는 다음 그림과 같다.



卽 家庭經營體는 主體인 家族과 그것이 本來 가지고 있는 人的資源과 普遍的으로 주어 있는 時間 또는 外部에서의 調達을 必要로 하는 其他 物的資源 같은 主體的 또는 客體的 要素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家庭經營은 이러한 主體的 또는 客體的 諸要素의 짜임으로 實現된다. 卽 生活資料의 調達과 金전, 金전과 時間의 짜임은 다같이 物的資源을 形成하고 生活資料의 調達, 加工, 保全是 知識, 實力, 에너지, 愛情 등의 人的 資源 關係를 形成한다. 그리고 이러한 諸要素의 짜임은 結局은 家庭의 諸關係의 어느 하나로 또는 數個의 關係의 相互關係로 表現된다. 다시 말하면 家庭生活은 上回 右에서 表示함과 같이 모든 이 같은 諸要素의 動態的 짜임인 家庭의 諸關係의 具現인 것이다.

이와 같이 家庭經營은 모두 家庭의 動態的인 諸關係라고 表現되지만 이 動態的인 諸關係를 調整=管理하는 것이 이른바 家庭의 管理인 것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 나는 家庭管理=家庭의 諸關係의 管理라고 理解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V 家庭經營學과 家庭管理學과의 關連

以上에서 理解한 것과 같이 家庭經營學은 家庭을 에워싼 諸空間의 變化, 發展에 應하여 생겨지는 家庭經營의 個個의 問題를 具體的으로 科學的으로 合理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實踐의 學問으로 發生하고 發達한 까닭에 容器(學問의 系統化)는 그렇게 大端치 않으나 內容物(個個의 部門의 實踐)은 新鮮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一元的體系보다 多元論的인 것이다. 結局 家庭經營學은 理論體系의인 研究가 發達하고 다음으로 그 理論體系의 觀點에 立脚하여 各種의 個別의 研究가 展開된다는 것보다 各論의이며 이리

한 個別的 研究의 綜合으로 一般的 發達을 보아 왔다고 理解된다.

이러한 發達過程을 가진 家庭經營學에 있어서 部門別, 個別的인 細目研究에 의하여 모여진 建築石材料를 整理하여 家庭經營 全一體的으로 合目的的으로 調整하기 위하여는 統一原理가 要求되어져야 한다,

나는 이 統一의 原理를 管理의 原理에서 찾으려고 한다. 家庭經營學이 家庭經營의 全體的 統一의 合目的性을 目標삼아 眞正한 뜻에서의 有效한 意義를 發揮하게 됨은 家庭經營의 管理의 學으로 發展하는 가운데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管理를 中心으로 보아야만 個別部門의 發達하고 個別的, 指術的으로 되거나 또는 研究하면 할수록 結局은 各 部門의 基礎科學에 歸着還元하는 性格을 가진 家庭經營學으로 固有의 對象과 目的과 機能을 明示하고 學問的封鎖性을 주는 것이다. 家庭經營의 個部部門의 具體性이 必要의 應하여 部門마다 發達한 家庭經營을 一個의 獨立된 學問으로 認識하는 길은 그 研究方法의 科學性이 있는 것은 勿論이나 그 管理라고 하는 家庭經營 主體의 意志에 따른 統一의 創造의 原理에 의하여 統一하는 것 다시 말하면 管理의 눈을 通하여 家庭經營全一體的의 合目的的 調整을 圖謀하는 길에 의하여야만 이루어진다.

各部門의 科學的知識이 綜合配列된 家庭經營學이 참으로 有效한 家庭經營을 위한 實踐의 學問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은 家庭經營의 管理의 學, 即 家庭管理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家庭經營學과 家庭管理와의 本質的 關聯이 있는 것이다. 먼저 나는 本稿(Ⅳ)의 처음에서 家庭經營과 家庭管理를 一應概念上 區別을 하였으나 以上과 같은 뜻에서 家庭經營學을 家庭管理學으로 理解할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욱이 管理를 中心으로 學問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기는 하나 그것은 管理를 計劃, 實行, 統制, 評價 등의 매네지먼트 要素와 同列에 두거나 또는 管理를 衣, 食, 育兒, 經濟 등의 家庭經營의 諸部門과 並列的 同列에 넣을 것을 指摘하면서 本稿를 막고 싶다.

參 考 文 獻

- 1) G. M. Henderson :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in the U. S. (1955) p. 6
- 2) Ibid.
- 3) H. Harap : The Education of Consumer (1920)
- 4) C. Frederiak : Household Engineering (1919)
- 5) H. G. Hurd J. Am. Home Ec., Feb. (1950)
- 6) F. J. Roethlisberger : Managenrent and Morale. (1941)